KIA 내야 실책 연발 … 땅볼만 나오면 '불안불안'

부상·트레이드·군입대 캠프 참가 9명 중 4명 이탈 초반 순위싸움 변수 될 듯

KIA 타이거즈의 '내야'가 '뇌관'이 됐다.

KIA는 시즌 초반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고전을 하고 있다.

타선의 폭발과 침묵이 반복되면서 경기 결과는 예측불허다.

두 자릿수 득점을 폭발시킨 경기가 두 차례 있지만, 단 한 점도 만들지 못하고 영봉패를 당한 경우도 3차례 있었다. 1득점으로 끝난 패배 경기도 두 번 있다.

무엇보다 실책이 뼈아프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 실책이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다.

현역 시절 '수비의 달인'으로 불렸던 김종국 감독은 사령탑으로 맞은 첫 시즌 '수비'를 강조했다. 특히 센터라인의 수비를 강조하면서 시즌을 준비했지만, 4월 성적은 신통치 못했다.

LG와의 개막전에서부터 2루수 김선빈의 연속 실책이 나오는 등 KIA는 26일 경기 전까지 19경기에서 26개의 실책을 쏟아냈다.

내야 전 포지션에서 고르게 실책이 나오면서 땅볼 타구가 나올 때마다 팬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내야를 지켜보고 있다.

설상가상 내야에서 이탈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KIA는 앞선 스프링캠프에서 김선빈, 박찬호, 류지혁, 김태진, 황대인, 오정환, 박민, 김도영, 윤도현 등 9명의 내야수로 시즌을 준비했다.

이 중 개막 엔트리에는 김선빈, 박찬호, 류지혁, 김태진, 황대인, 박민, 김도영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선발투수들이 등록되면서 박민이 빠지고 6명의 내야수로 초반 운영에 나섰다.

캠프에서 경쟁을 했던 9명의 내야수 중 현재 3명이 자리에 없다.

지난 19일 허리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태진이 포수 박동원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으로 떠났고, 톱타자 겸 유격수로 활약하던 박찬호는 허벅지 통증으로 이틀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결국 2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앞서 시범경기에서는 윤도현이 손가락 골절 부상을 입고 프로 데뷔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여기에 박민이 우완 김현수·좌완 장민기와 함께 26일 발표된 2022년 2차 국군대표 선수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5월 2일 군 복무를 위해 떠난다.

박민은 27일 KT전까지 뛴 뒤 입대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KIA 입장에서는 반가운 합격 소식이지만 어수선한 내야 상황을 생각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앞서 류지혁과 김선빈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전했던 만큼 실책과 함께 부상은 당분간 내야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내야 운영에 고민은 생겼지만, 때를 기다리던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망연자실 지난 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유격수 박찬호가 1회초 2사 1, 2루에서 한화 하주석의 타구를 잡아 송구실책한 뒤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를 대신해 1군에 콜업 된 김규성은 지난 24일 키움과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처음 선발 출장에 나섰고, 첫 타석에서 한현희의 초구를 공략해 홈런으로 시즌 첫 안타를 장식했다.

김규성의 '깜짝포'를 앞세운 KIA는 이날 장단 12안타로 14점을 뽑아내면서 키움과의 첫 대결을 위닝시리즈로 장식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들이 발생한 내야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현경, KLPGA 챔피언십 3년 연속 우승 도전

최고 권위 시즌 첫 메이저대회 김효주·유해란 등 총출동

박현경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박현경은 오는 28일부터 포천 일동레이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 챔피언십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한다.

1978년 창설된 KLPGA 챔피언십은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과 함께 KLPGA투어에서 권위와 전통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로 총상금도 작년 10억원에서 올해는 12억원으로 올랐다.

박현경은 2020년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고, 작년에는 2연패에 성공했다. 이 대회에서 연속 우승은 고(故) 구옥희가 1980~1982년 3연패 이후 39년 만이었다.

박현경이 3연패를 이룬다면 구옥희에 이어 40년 만에 두 번째다.

KLPGA투어에서 단일 대회 3연패는 드문 일이다. 구옥희 외에 박세리 강수연, 그리고 김해림 등 4명만 달성한 대기록이다. 최근엔 김해림이 2016~2018년 교촌 허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이룬 바 있다.

박현경은 이번 시즌 3차례 대회에서 한번 밖에 톱10에 오르지 못했다. 장기인 '컴퓨터 퍼팅'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3차례 대회에서 끌어올린 실전 감각이 이번 대회 때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도 KLPGA 챔피언십 출전에 앞서 치른 2차례 대회에서 공동 42위와 공동 7위로 성적이 엇갈렸지만 2연패 위업을 이뤘다.

박현경은 "첫 우승에 타이틀 방어까지 해서 내게는 정말 의미가 깊은 대회가 됐다. 주변에서 3연패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조금 부담은 된다. 기록보다는 컨디션과 샷 감각을 100%로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경의 3연패 가도를 막아설 경쟁자는 많다. 가장 경계할 대상은 세계랭킹 8위 김효주다.

지난 17일 LPGA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는 LPGA투어 일정을 잠시 접고 이 대회에 출전한다. LPGA투어에서 5승을 따낸 김효주는 2020년과 지난해 2년 동안 KLPGA투어에서 4승을 쓸어 담았다.

김효주는 "KLPGA 챔피언십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다. 이 대회에서 꼭 우승하고 싶어서 출전하기로 했다. 컨디션이 좋다. 우승을 하고 싶지만 일단은 톱텐을 목표로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 올리겠다"고 우승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KLPGA 챔피언십 대회 3연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박현경. /연합뉴스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를 꿰찬 유해란은 생애 첫 메이저 우승과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24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정상에 오른 유해란은 4월에 치른 3차례 대회에서 우승 한 번을 포함해 4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상승세가 무섭다.

유해란은 "올해 목표가 메이저 대회 우승이다. 지난주에 우승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롱아이언을 잘 쳐야 하는 코스인데 지금 롱아이언 샷이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1승씩 챙긴 장수연과 박지영도 유해란과 함께 시즌 2승 선착 경쟁에 나섰다.

코로나19에 걸려 이번 시즌에 아직 한 번도 대회를 치르지 못한 작년 3관왕 박민지와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날카로운 샷 감각을 보인 임희정도 시즌 첫 우승을 내심 벼르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이소미, 장하나, 이다연 등도 유력한 우승 후보다. LPGA투어에서 뛰는 이정은과 김아림도 우승 경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임성재, 3년 만에 국내 골프대회 출전

KPGA 우리은행 챔피언십

한국 남자 골프의 에이스 임성재가 3년 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우리은행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임성재가 오는 5월 12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여주 페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우리은행 챔피언십에 출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차례 정상에 올랐고, 2020년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도 1승을 포함해 5차례 톱10에 오르며 페덱스컵 랭킹 8위를 달리고 있다.

세계랭킹 19위 임성재는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사냥에도 나설 예정이다.

임성재는 지난 2019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PGA투어 더CJ컵 이후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더CJ컵이 코로나19 사태 탓에 2020년과 작년에는 미국에서 치러졌기 때문이다.

임성재가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3년 만이다.

2019년 10월 더CJ컵에 앞서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렸던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우승한 이후 한 번도 코리안투어 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다.

올해 신설된 우리은행 챔피언십은 총상금 13억원에 우승 상금이 2억5000만 원에 이른다.

임성재는 이번 국내 나들이를 위해 PGA투어 대회 2개를 건너뛰고, 돌아가자마자 메이저대회 PGA챔피언십에 출전하는 빡빡한 일정에도 우리은행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을 노리고 출전을 결심했다. 우리은행 챔피언십은 '골프 셀러브리티'로 유명해진 메이저리그 124승 투수 박찬호도 초청 선수로 출전한다. /연합뉴스

콘테 감독, 토트넘에 남을까 떠날까

PSG행 '역제안설'에 술렁…영국 매체 "접촉 없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안토니오 콘테(53)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행을 타진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5일 "콘테 감독과 PSG 사이에 접촉은 없었다"고 전했다.

시즌 막바지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순위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콘테 감독은 최근 '이적설'에 휩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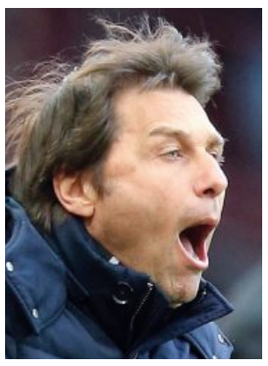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콘테 감독이 PSG를 지휘하고 싶어하며, 구단에 먼저 2년 계약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리그 4강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토트넘은 최근 정규리그 두 경기에서 1무 1패에 그치며 5위(승점 58·18승 4무 11패)로 떨어졌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권을 따내려면, 남은 5경기에서 다시 순위를 끌어 올려야 한다.

텔레그래프는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UCL 진출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토트넘 구단과 잔류, 전력 보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PSG 역제안설을 부인했다.

콘테 감독이 PSG로 향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선수단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그가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콘테 감독

앞서 텔레그래프는 "콘테 감독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에게 팀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 올 여름 적어도 6명을 영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PSG는 지난해 1월부터 팀을 이끌어온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결별할 전망이다.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등 초호화 공격진을 보유한 PSG는 올 시즌 프랑스 리그1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최다 우승 타이 기록을 썼지만, 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PSG가 UCL에서 16강 탈락에 그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낸 탓이다.

지네딘 지단 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감독도 PSG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